

비박성 기저막 신병증을 동반한 미세 변화 신증후군 1례

대구 파티마병원 내과, 해부병리과¹,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²

정재권, 황중하, 김성호, 윤혜진, 정승욱, 김익수¹, 김용진²

서 론: 신조직소견상 미세변화 신증후군이나 정상 신조직 소견으로 진단된 환자군에서 추후 세밀하게 관찰해 본 결과 기저막 두께가 감소된 소견을 보고한 경우가 있다. 비박성 기저막 신병증은 전자현미경상 사구체 기저막 두께의 전반적인 감소를 보이면서 혈뇨를 동반하는 질환으로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뇨를 동반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혈뇨와 단백뇨를 동반한 환자가 자주 관찰되는데 대개는 신증후군이나 비박성 기저막 신병증 단독으로 진단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저자들은 비박성 기저막 신병증이 미세변화 신증후군과 같이 합병되어 진단된 경우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남자 23세 환자로 1년 6개월전 부터 간헐적인 전신부종 호소하며 소변검사상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뇨와 현미경적 혈뇨 보여 신생검을 위해 입원하였다. 가족력상 특이사항 없으며 과거력상 내원 5년전부터 고혈압 진단받았으나 약물 치료는 하지 않았다. 이학적 검사상 양측 하지의 함몰부종은 없었다. 말초혈액 검사상 백혈구 4290mm^3 , 혈색소 15g/dl 였으며 혈청 검사상 알부민 4.8g/dl 크레아티닌 1.0mg/dl 보체-3 73mg/dl 보체-4 26.5mg/dl 총콜레스테롤 239mg/dl 24시간 소변 단백질 배출량이 3.4g 이었다. 초음파 검사상 특이소견 없었다. 신생검에서 광학 현미경과 면역 형광 현미경상으로는 정상이었으나 전자현미경상 부분적인 상피세포 족돌기 소실과 기저막 두께의 전반적인 감소가 보여 미세변화 신증후군이 비박성 기저막 신병증과 동반된 것으로 진단 후 현재 스테로이드 치료 중이다.

결 론: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뇨와 현미경적 혈뇨를 보이는 환자에서 비박성 기저막 신병증을 동반한 미세변화 신증후군을 진단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